

# 지역사회를 위한 안내서

## 왜 이런 캠페인이 필요한가?

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폭력은 호주사회의 심각한 문제입니다. 여성 중 3분의 1이 15세 연령 이후 자신이 아는 사람으로부터 신체적 또는 성적 폭행의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.

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, 폭력이 무례함으로부터 말미암아 시작된다는 사실도 파악해 가고 있습니다. 그러나 아직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, 폭력의 순환이란 남녀 어린이들이 유년기부터 형성해가는 사고방식과 태도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.

다음은 존중을 바탕으로 한 인간관계에 대한 청소년들의 생각과 관련된 심히 우려되는 통계자료입니다.

## 4명 중 1명의 청소년이

남자들이 길거리에서 여자들을 상대로 행하는 모욕적 언사나 언어적 희롱을 심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

평소에는 상냥한 남자가 술에 취해서 언쟁을 하다가 여자친구의 뺨을 때리는 일이 있다면 별로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

우리 자신의 반응은 어떤가 생각해 보면 무례와 난폭한 행동을 흔히 두둔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놀랄 수도 있습니다. 우리가 무심히 하는 말 중에 “그냥 넘겨라, 그렇게 심하게 한 것도 아니잖니”, “사내 아이들이 좀 그럴 수도 있는거지”, “여자 아이가 어떤 옷을 입고 있었길래?” 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? 어른들의 이런 반응이 결국은 무례한 행동을 정상적인 성장과정의 일부본인 것으로 여기도록 용납하는 것이 됩니다.

## ‘시작부터 막아주십시오’ 캠페인의 목적은?

시작부터 막아주십시오 (Stop it at the Start) 캠페인은 부모, 가족 구성원, 교사, 스포츠 코치, 고용주, 기타 모범적 위치에 있는 인물 등 모든 어른들을 대상으로 자기 자신의 가치와 태도를 성찰하고 가까운 청소년들과 함께 존중에 관한 대화를 가지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.

청소년들은 어른들의 언어선택, 몸짓, 반응 등 작은 것을 보고 배웁니다. 어른들이 하는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사실 의도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오해를 하거나 어떤 방식의 행동을 용인하거나 허용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.

**시작부터 막아주십시오** 캠페인은 어른들에게 우리 청소년 세대에 존중심을 배양하고 지역사회에 함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도록 훌륭한 역할을 해주실 것을 강조합니다.

어른들이 작은 변화를 시작할 수 있다면.. 말을 하기 전에 멈추어보고, 무심코 말하는 농담이나 우스개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는지 언행을 성찰해 보고, 존중에 관한 대화를 시작하며, 무례한 행위를 보았을 때 지적하거나 개입할 수 있다면, 우리는 보다 훌륭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.

##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?

존중을 장려하기 위해 한인사회의 모두가 쉽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:

- 시작부터 막아주십시오 포스터 전시를 통한 캠페인 지지
- 한인 신문이나 다른 출판물을 통해 캠페인에 관한 정보 공유
- 소셜미디어에 시작부터 막아주십시오 포스팅 올리기
- 캠페인을 지원하고 존중에 관해 대화하는 커뮤니티 이벤트 열기
- 캠페인 홈페이지에 마련된 자료를 이용해서 청소년들과 존중에 관한 대화를 시작하기

위 자료와 더욱 많은 지원 자료를  
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  
**RESPECT.GOV.AU/COMMUNITY**

- 1 홀과 파트너즈 | 오픈 마인드 2015, 더 라인 캠페인 - 연구결과 요약, 홀 & 파트너즈 | 오픈 마인드, 시드니.
- 2 상동

**VIOLENCE AGAINST WOMEN**  
**LET'S STOP IT**  
**AT THE START**  
**RESPECT.GOV.AU/COMMUNITY**



Australian Government

A joint Australian, state and territory government initiative.